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보도일시	2006.05.04(목) 13:00부터	
생 산 일	2006.5.4(목)10:00	생산부서	국제 금융국 금융협력과
담당과장	문홍성(T:2110-2501)	담 당 자	장도환(T:2110-2503)

제 목: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주요성과

□ 5.4(목)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중국 진런칭 재정부장, 일본 타니가끼 사다카즈 재무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음.

- ① ASEAN+3 금융협력 특히 CMI 강화방안이 금번회의를 통해 완결될 것을 환영
- ② 아시아 공동통화 구성을 위한 3국 정부간 공동 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
- ③ 한국을 포함한 IMF 쿼타 과소 평가국에 대한 쿼타 특별 증액을 9월 IMF/WB 연차총회까지 이루어 내기 위해 3국간 공동 노력을 전개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제6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공동 메시지

1. 한중일 3국 재무장관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6차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지역경제 동향, 지역금융협력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에서 3국의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2. 의미와 성과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는 3국간 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음.
 - 2-1. 우리는 지역내 높은 내수와 지속적이고 견고한 세계경제 성장으로 2006년 3국의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데 인식을 공감하였음. 다만 고유가의 지속,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 상승 추세는 역내 경제에 주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2-2. 우리는 ASEAN+3 역내 금융협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데 동의함. 우리는 2004년 제주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작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강화 방안이 (금번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완결될 것을 환영함. 우리는 CMI의 다자화(CMI의 새로운 체계, 일명 Post CMI)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 CMI를 넘어서는 역내 금융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는데 합의하였음. 우리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과 같은 다른 금융협력사업을 촉진하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3국 장관은 역내에서 금융통합이라는 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음. 우리는 역내 통화 단위(아시아 공동통화)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된 관련된 공동 ASEAN+3 재무장관 process에서 시작될 것임을 합의하였음.

2-3. 더 나아가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제적/지역적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우리는 현재의 경제력과 국제경제에서의 상대적 비중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심각하게 반영되지 못한 국가들의 과소평가문제와 이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우리는 또한 IMF에서 쿼타의 특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IMF 총재가 IMFC 회의 및 이사회와의 협력하에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여 싱가포르에서 9월 개최될 차기 IMF, World Bank 연차총회에서 합의되어야 함을 촉구하였음. 반면 우리 3국은 IMF 활동과 관련한 우리의 참여를 한층 강화할 것임.

3. 지금까지 우리의 활발한 노력과 금번 회의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간의 보다 긴밀한 정책대화를 위한 우리의 회의를 지속하는데 합의하였음